화학/정유 Analyst 정경희 caychung09@kiwoom.com
RA 신대현 shin8d @kiwoom.com

# LG화학, 2분기 추정치 대비 선전, 그러나 보수적 투자관점 유지

## 첨단소재 출하량 증가, 생명과학 일회성 라이선스 아웃 계약으로 수익성 개선

### ◎ LG화학, 2분기 영업이익 약 4060억원(YoY -34%, QoQ +53%, 3.3% OPM) 발표

》 동사는 1분기 매출액 약 12.3조(YoY -15%, QoQ +6%)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증가

》 영업이익 기준 시장 컨센서스 11% 하회, 당사 추정치를 40% 상회하였음. 상회 내용은 아래와 같음

- 석유화학부문은 영업이익 약 320억원(OPM 0.7%)으로 전기비 흑자전환했음. 원료가 강세에도 가전 등 전방에서 성수기 진입 및 ABS 등 주요 제품이 중국 이구환신 정책의 긍정적 영향 수혜. 단, 회사는 점진적인 수급 밸런스 개선은 예상하나 중국 등 글로벌 수요 부진, 운임 상승 등으로 수익성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
- 생명과학에서는 희귀비반치료제 라이선스 아웃 계약급 반영으로 일시 매출액 및 수익성이 증가하여 매출액 4040억원, 영업이익 1090억원, 이익률 27.0%를 기록하였음. 향후 추가 라이선스 아웃이 확정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밝힘
- 첨단소재는 전방산업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지재료 출하 물량 증가로 매출액과 수익성이 개선되며 매출액 약 1.7조원, 영업이익 1700억원으로 전기대비 약 280억원 증가한 9.8%의 영업이익률 발표

### ◎ '24년 성장성 조정, 회사는 투자에 집중하는 기간

》 '25년까지 석유화학 약세 및 EV 단기 성장률 조정 의견 유지

- 동사 석유화학의 주요 제품군인 NCC/PVC 품목은 중국 설비 급증에 따라 중장기 시황 약세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제품군. 분기별 시황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과거 대비 감소한 마진 수준 지속 전망
- 글로벌 EV 성장률은 장기 CAGR이 과거 대비 하락한 상황으로 보수적 관점 유지, 또한 미대선 결과에 따른 부확실성 대두(IRA 존폐여부 및 유지되더라도 AMPC 조정폭 우려)
- 회사는 1분기 실적발표에서 '24년 CAPEX 4조원 계획을 유지에서 전일 3조원 초중반으로 조정 발표
- 회사는 현 시점을 예상보다 둔화된 전기차 수요 성장세, 중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 지속, 보수적 투자 집행을 언급, 또한 주주환원은 계속 성장이 근본으로 답변하여 단기적인 주주환원 확대 계획은 우선순위가 아닐 듯
- 전방산업 성장률 조정 및 미대선 불확실성, 석유화학 침체로 성장과 주주환원에서 단기 매력 감소 구간으로 판단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7월 25일 현재 상기 언급된 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
-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